‘민족시인’ 조태일 추모열기

5일 곡성 조태일문학관서 추모 행사

전집출간·시낭독 등 문학적 삶 기려

“우리들의 캄캄한 가슴엔
수많은 별들을 이끌고
달이 피어오른다.
순한 어머니가 피어오른다.

어떤 바람이 감히
이 사랑을 쓸어버리랴.
어떤 칼날이 감히
이 자유를 베버리랴.”

(‘달-국토 41’ 중)

1970~80년대 힘찬 언어로 폭압적 현실에 저항했던 ‘국토’의 시인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 시인의 10주기(9월 7일)를 맞아 전집간행, 학술제 등 고인의 문학적 업적과 삶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국토’(1975년) ‘가거도’(1983년) 등 군사독재 시절 판매금지됐던 고인의 시집을 출간한 창비는 고인의 10주기에 즈음해 ‘조태일 문학전집’을 간행했다.

시(2권)와 시론과 산문을 엮은 산문(2권) 등 4권으로 구성된 전집은 이동순(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씨가 4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시집 2권에는 시인이 생전에 낸 8권의 시집에 실린 작품 454편과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 64편 등 500여편의 시가 실렸다.

5일에는 고인의 출생지인 곡성군 태안사 내에 2003년 건립된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추모행사가 열린다.

창비 편집인 백낙청씨가 유족에게 문학전집을, 전각가 정병례씨가 고인의 시와 얼굴을 4면에 새긴 대형 전각작품을 전달한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태일 시인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동순 박사가 기념강연을 하고 신경림 시인, 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장 등 고인의 선·후배, 지인들은 ‘내가 만난 조태일’이라는 주제로 고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도종환, 나희덕씨 등 후배 시인들은 시 낭독의 시간을 가진다.

이어 국악 연주, 살풀이춤 공연이 펼쳐지며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도 상영된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국학술정보원에서 간행된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조태일 시연구’와 작곡가 한보리씨 등이 고인의 시 10여편에 곡을 붙여 만든 음반 CD도 무료 배포된다.

한편, 고인이 간행하다 폐간됐으나 2003년부터 반년간지로 복간된 시전문지 ‘詩人’은 제11호를 조태일 추모특집으로 발행했다.

조태일 시인은 곡성 태안사 대처승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유년시절 동리산 자락에서 자랐으며, 곡성 동계초와 광주 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1989년 광주대 교수로 임용돼 예술대 초대학장으로 재직하다 1999년 지병인 간암으로 작고했다. 만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통·현대 어우러진 ‘흙의 미학’

남도 도예가들 ‘흙은 쉼이다’ 전

10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이용철 작 ‘청자 다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10일까지 지역의 대표 도예가들을 초청해 ‘흙은 쉼이다’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순희, 김혜옥, 라필주, 이용철, 정하양, 채종기, 홍성일씨 등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도자기를 선보인다.

김순희씨는 하늘빛을 닮은 청자를 전시하고, 김혜옥·라필주씨는 동양미 물씬 풍기는 분청사기를 출품했다.

또 이용철·홍성일씨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로 만든 다양한 차도구를 선보이고, 채종기씨는 앙증맞은 오리를 표현한 도자기 조각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575-888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명의 탄생과 소멸 형상화

설치작가 김주연 개인전

4일부터 무등현대미술관

‘메타모포시스’

신문지로 쌓은 거대한 탑 구조물에 씨앗을 심어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설치작가 김주연씨가 오는 4~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생물의 변태를 뜻하는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메타모포시스’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하듯 새로운 생명체로 탈바꿈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3톤 가량의 신문지를 쌓은 뒤 씨앗이 발아시켜 생명의 탄생과 소멸 등을 형상화했다.

작품에 쓰인 신문지는 독일 유학시절인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그가 직접 모은 것이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순수조형예술예술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돌아와 ‘이숙(異熟) 프로젝트’ ‘일상의 성소’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명난 난장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서 5~6일 ‘젊은 실험 예술제’

관객·공연자 함께 ‘어울림 마당’

‘신명난 난장에 초대합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어우러져 난장을 펼친다. 관객들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공연을 즐기면 된다. 그림도 감상하고, 재미있는 체험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타악 그룹 ‘얼쑤’가 일을 벌였다. 한국, 러시아, 짐바브웨이, 일본 등 세계각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펼치는 ‘젊은 실험 예술제-굿+판’ 가 오는 5~6일 이틀간 열린다. 장소는 광주시 남구 대촌동 옛 양과초등학교에 자리잡은 문화체험터 얼쑤다.

마임, 신체 퍼포먼스, 연극, 판소리 다종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에는 20여개 공연팀이 참여한다.

‘본 마당-굿+창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마당이다. 서울 김찬수 마임컴퍼니의 ‘삐에로 익살쇼’, 부산에서 활동하는 황해순의 ‘탈·짓·굿’, 바닥소리(서울)의 ‘창작 소리극-닭들의 꿈’, 야단법석(서울)의 ‘타악퍼포먼스 공감’, 타악그룹 ‘광명’(경기도), 극단 갯돌(목포)’의 마당극 ‘남도천지-밥’, 얼쑤의 타악퍼포먼스 ‘탄생’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러시아 일렉트릭 현악 4중주단의 ‘미에르바’의 공연, 아프리카 음악과 퍼포먼스가 만나는 ‘실험음악’(짐바브웨·호주), 제임스(브라질)의 자전거 퍼포먼스, 다이스케(일본)의 스트리트 서커스 등 외국 공연팀도 눈길을 끈다.

소극장 마당에서는 연출가 이윤택이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의 대표작 ‘서툰 사람들’이 공연된다. 지금은 영화감독으로 이름 높은 장진이 희곡을 쓴 사회풍자극으로 독신자 아파트에서 초보도둑과 집주인이 벌이는 하룻밤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교실을 전시장으로 꾸며 다양한 작품도 전시한다. 홍성민의 ‘Asia-샘’과 천현노의 ‘기억’, 이희정의 ‘다(ALL)’ 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소통마당에서는 소통마당에서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판소리의 창조적 계승’과 ‘우리몸짓’, ‘마임’, ‘신체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체험마당에서는 난타체험과 악기체험, 놀이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먹을거리 코너도 운영한다.

일일 입장권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얼쑤(http://www.olssu.com) 문의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아암 환우 돕기 산사음악회

5일 화순 만연사

범능스님 등 출연

어린이 암 환자를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5일 오후 7시 화순 만연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노래부르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능스님〈사진〉을 비롯해 불교음악가 홍순지·김무한씨, 부루나합창단(광주전남사암연합회), 만연사 비로자나 합창단(단장 배보희), ‘향수’를 부른 가수 이동원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한다.

범능스님은 이번 음악회와 관련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소아암 환우들은 지금 현재도 병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투병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환우들에게 큰 믿음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만연사와 불지불교문화원이 주최하며 수익금 전체를 화순 전남대 병원에 입원중인 어린이 환자들에게 기부한다. 입장료 2만원. 문의 061-374-2112.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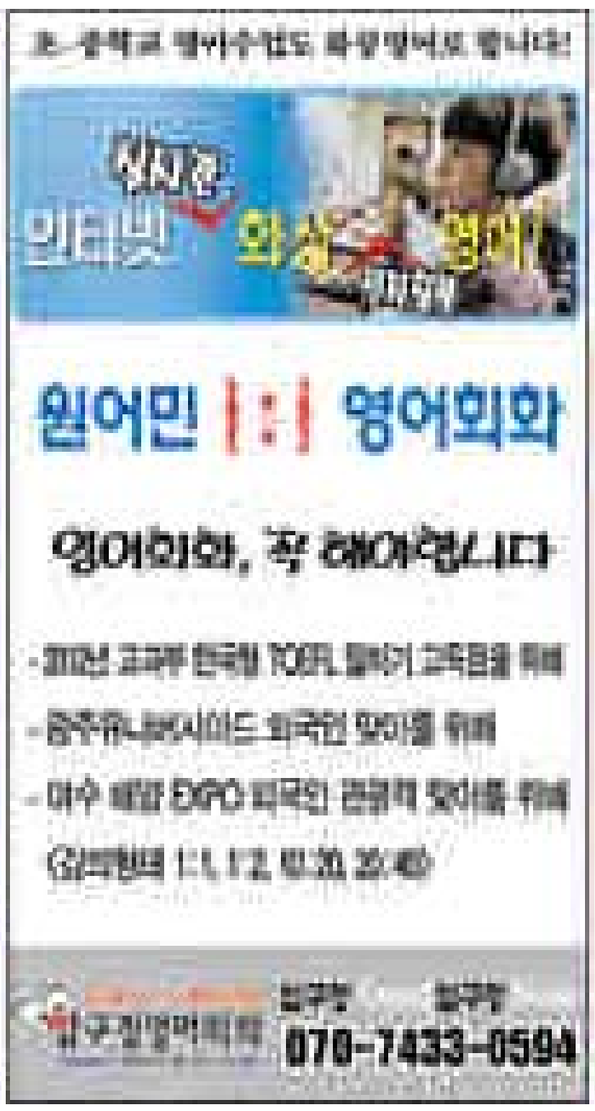
오늘 창립 23돌 기념식

(사)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회장 이순희)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2009여성유권자 대회가 2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의 힘 23주년, 미래 한국에는 여성이 있다’ 비디오 상영 등 기념식과 함께 2010 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남녀동반선출 투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 기초의원 절반을 여성으로 반드시 당선시킨다’ ‘우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일천만명 서명운동으로 반드시 이룩한다’ 등 여성유권자 5가지 행동수칙도 발표한다.

이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의대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

문의 062-367-3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